

編修를 마치면서

鄭 然 澤*

筆者는 1981年 1월부터 1982年 12월까지 編修委員長(編修理事)으로서 學會誌 및 論文誌의 編修를 맡아 왔다. 그간에 朴相禧 編修理事(제 1분과위원장)와 羅正雄 編修理事(제 2분과위원장), 羅正雄理事가 渡美하신 후로는 金漢星 編修理事(제 2분과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大過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으며 위의 여러분과 編修委員會 委員 및 事務局 實務擔當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간단히 개요를 보고하고 몇 가지 느낀 바를 적고자 한다.

1. 學會誌는 學會의 얼굴이며 그 學會의 體質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體制와 內容이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編修理事의 책임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1982年 7月號부터 學會近代化의 一環으로서 오래동안의 현안인 論文誌를 學會誌로부터 分離하여 發刊하게 되었음은 會員 여러분의 聲援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 學會의 使命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會員의 啓蒙, 國內외의 學術 및 技術의 動向, 뉴스등을 지체없이 전달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學會誌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내용이 되게끔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편집하였다.

3. 本學會는 電氣에 관한 綜合學會이므로 基礎, 材料, 에너지, 電力, 情報, 시스템 分野等에 관한 테마를 거의 균등하게 취급하였다. 특히 電氣機器, 電力計劃制御, 材料 및 放電 등 각 研究會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지면을 할애 하였으며 讀者의 대상을 大學院 碩士課程 基準에 두는 것을 編修의 基本方針으로 하였다.

4. 종래 學會誌의 發行日이 發行月보다 대체로 약 2개월이나 늦어지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發行月중에 發行하여 會員의 손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였다.

5. 學會誌의 表紙는 1981年 1月號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廣告의 게재를 중지시켰으나 業體로 부더의 요망과 廣告收入面을 고려하여 1982年 1月號부터 다시 廣告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6. 論文審査는 종전과 같은 方法으로 하였으며 接受時 投稿者가 編修委員會內의 어느 分野에 해당되는 論文인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審査終了後 掲載키로 결정되면 몇月號에 掲載豫定인가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7. 學會財政의 어려움 때문에 1983年 1月號부터 論文掲載料를 반기로 決定한바 있었으나 論文投稿者의 부담을 덜어주고 研究活動을 支援하는 의미에서 종래와 같이 4 page 以內는 無料掲載키로 하였으니 다행스럽고 新任 會長의 결단에 감사하는 바이다.

本學會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고 이에 대한 直接的인 惠擇으로 받는 것이 學會誌와 論文誌이다. 2년간의 論文接受件數는 표 2와 같이 109件이며 論文掲載件數는 표 3과 같이 87件이다. 1件에 2名の 共著者가 있는 것으로 보면 約 200名 정도의 會員만이 2년간에 論文投稿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會員中에서 論文投稿 경험자는 비교적 적으며 많은 會員이 學會誌를 받아 보는 것을 會員으로서의 대부분의 메리트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本學會 會員數는 적극적인 會員增加活動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會費納付狀況은 아주 低調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 하나는 會費에 대하여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재임중 여러會員으로부터 會誌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 왔고 會員에게 會費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會員의 관심을 높일 수

*正會員: 明知大 電氣工學科 教授·工博

